

대학생이 지각하는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 경 국*

요 약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한 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세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울산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신뢰 중 사회기여와 군사능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성실성과 조직문화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 둘째, 군 신뢰와 국가안보의식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사회기여와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군 신뢰 중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군사능력의 순으로 국가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회기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A Study on the Effect of Trust in the Arm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Kyung Kook Chun*

ABSTRACT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of a government is to protect citizen lives and its own territory from outside threats. Especially recent political changes surrounding the Korea Peninsula seriously threaten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To cope with the situation,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based on citizen's trust in the army is needed. Accordingly survey analysis on effect of trust in the army on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had been conducted on students of a university located in Ulsan.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s follows. First, while social contribution and military abilities among trust in the army are highly evaluated, integrity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low evaluated. Second, all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ing variables are significantly positive. But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cial contribution and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is relatively low. Third, integrity,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abilities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but social contribu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Key words : trust, national security, military abilities, social contribution, integrity,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접수일(2020년 08월 07일), 수정일(1차: 2020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2020년 10월 28일)

* 선린대학교 국방기술의무계열

1. 서론

최근 한반도 주변 환경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과 세계 전략이 미국 자국 이익 중시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대선 후보시 주한 미국 부담금 문제를 제시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또 최근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한한령 등 한중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중국을 통한 북한을 설득과 압박하려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본과는 전통적인 민족적 경쟁의식이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과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설치 문제로 한일간 갈등도 더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북한, 일본, 중국,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변함에 따라 우리 내부의 안보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김충남, 문순보[1]는 국가안보란 “국가가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상태”로 정의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국가안보 정책방향 설정 등 국가안보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한 시대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현실의 구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체제에서 특성상 정책결정론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정책결정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높은 안보의식은 국방외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이 형성될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들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들 수 있다.

군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군 또는 군인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 또는 호의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2]. 따라서 신뢰는 신뢰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3]. 즉, 군이 수행한 정책의 결과나 그 과정으로서 행위가 국민의 기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느끼면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신뢰가 낮아지거나 불신이 높아진다. 우리 군은 최근 군의 투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걸쳐 새로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래 전 군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불쾌한 역사적 경험을 남겼고, 조직문화적으로도 폭력적 유교문화, 폐쇄문화로 인한 군 폭력, 성폭력, 왕따 등등 다양한 인권문제와 부정부패 등이 언론에 심사참게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2].

지금까지 군 신뢰에 관한 연구는 군 내부 조직상의 신뢰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3]. 또 지금까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정치적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대내적 요인인 군에 대한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군에 대한 불신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군의 신뢰를 군사능력, 사회기여, 성실성, 군조직특성으로 나누고 이 신뢰 요인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군 안보의식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군 신뢰

2.1.1 군 신뢰의 개념

신뢰(trust)라는 단어는 독일어의 ‘편안함(trost)’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믿는 사람이 편한 함을 느끼는 사람간의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을 말한다[4]. Lewis and Weigert[5]는 신뢰란 사회적 관계와 유리된 어느 개인의 심리상태가 아니라 사람들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속성으로 이해한다. 즉,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고, 관계자들간에 사회적 결속을 낳는 핵심적 토대가 된다.

한편 Lewicki et al.[6]은 신뢰를 타인의 행위에 대한 확실적인 긍정적 기대라 정의한 반면 Bhattacharya et al.[7]은 불확실한 상호작용 하에서 상대방의 기대되는 행위로부터 다른 편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를 일반적으로 ‘관계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라는 정의할 수 있다.

신뢰는 주로 조직 내에서 조직과 상사, 동료간의 리더십, 공정성과 관련되어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조직의 효율성간의 관계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고 군에 대한 신뢰의 연구도 조직 차원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군 복무자를 제외하고는 직접 경험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주변의 친지, 친구, 선후배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 이미지에 따라 군에 대한 이미지로서 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군의 이미지에 관련된 신뢰 연구, 즉 국민이 군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군의 신뢰는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김청희[2]는 군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군 또는 군인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 또는 호의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하였고, 김태웅[8]은 청소년 정보 이용이 군 이미지와 복무의사 또 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그는 군 신뢰를 “군의 존재가치와 능력, 그리고 군의 정책 및 공보 활동에 대해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군(軍)은 “군에서 하는 일 또는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그 구성원인 군인들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협동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군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군 또는 군인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려는 성향” 또는 “국민이 군 또는 군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군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주체는 군 활동의 수혜자나 대상이 되는 국민이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군은 국민에게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이때 군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국민 개개인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군인으로서의 군, 둘째, 행정의 하위체계로서 존재하는 군 조직, 셋째, 대중매체 등을 통해 하나의 종합적 이미지로 존재하는 군으로 파악할 수 있다.

2.1.2 군에 대한 신뢰 결정요인

김청희[2]는 군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군의 능력’, ‘군의 사회기여’, ‘군의 성실성’, ‘효율성’, ‘개방성’, ‘일관성’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개방성’, ‘일관성’을 군의 조직문화특성으로 파악하여 크게 ‘군의 군사능력’, ‘군의 사회적 기여’, ‘군의 성실성’, ‘군의 조직문화특성’으로 나눴다. 또 그는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신뢰요인으로 사회적 기여, 자기희생, 충성심, 강력한 전투력, 군 구조의 합리성,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 안보의식의 강화, 군 경험의 자기 성장, 효율적인 운영, 사회적 안정감을 들었고, 불신 요인으로 폐쇄성, 비효율적인 운영, 불공정성, 조직구조의 불합리성, 비일관성, 열악한 복무환경,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약한 전투력, 불확실한 명령체계, 군 경험의 자기 퇴보 등을 들었다(<표 1>).

<표 1> 군 신뢰 요인과 불신 요인

신뢰 요인	불신 요인
사회적 기여	폐쇄성
자기희생	비효율적인 운영
충성심	불공정성
강력한 전투력	조직구조의 불합리성
군 구조의 합리성	비일관성
일관성	불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열악한 복무환경
안보의식의 강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군 경험의 자기성장	약한 전투력
효율적인 운영	불확실한 명령체계
사회적 안정감	군 경험의 자기 퇴보

출처: 김청희[2]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갖는 태도란 그 평가 대상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과 개인 특성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태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군에 대한 신뢰도 군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 개인특성,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군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받는 여러 가지 정보나 자극을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라 군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바, 이러한 평가의 결과가 군에 대한 신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군에 대한 신뢰를 판단하는데 토대가 되는 준거기준으로 군 또는 군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다. 즉 군의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이덕건[4]는 Mayer, Davis and Schoorman[9]의 일반적 신뢰 결정모형에서 제시된 능력(ability), 선의(benevolence), 성실성(integrity)을 신뢰의 결정요인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군은 국가안보라는 조직의 공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조직의 달리 폐쇄성, 위계성 등의 조직특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문화특성인 일관성, 효율성, 개방성도 군에 대한 신뢰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다.

1) 군사 능력

조직에서 능력이란 주어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 특성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능력은 역량(competence), 유용성(availability), 전문성(expertise)이라는 용어로 등장하기도 한다[10], [11]. 군의 경우 존재 의의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보위기능과 군 구성원에 대한 교육기능이 있으므로 군과 군인의 능력은 안보능력과 전문성이 능력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개념은 통상 국방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전통적 안보문제 전문가들에게는 국가안보는 군사위협이 부재 또는 외부로부터의 전복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동일시되었다. 탈냉전기 안보연구의 확대론자들은 안보개념을 확대, 군사안보 이외에도 정치안보, 경제안

보, 사회안보, 환경안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중 군사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영역이고 국방은 군사안보의 골간이다. 그리고 군의 능력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최후의 결정력인 동시에 외교와 같은 비군사적 대처방법이 성패를 가르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장 세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12].

2) 군의 사회기여

군의 사회기여는 신뢰대상이 신뢰주체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호의적인 서비스로 대국민활동, 군의 충성심, 또는 군 복부 경험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호의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신뢰 주체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여겨지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 있는, 또는 선한 의도, 이타성, 관심, 충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신뢰대상이 신뢰주체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는 신뢰대상이 신뢰주체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것이다[13].

3) 군의 성실성

성실성(integrity)은 신뢰대상이 신뢰주체가 받아들이기 만하다고 여기는 일련의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공정성, 일관성, 가치 일치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4]). 정부 신뢰의 경우 정부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 이해하고 도덕성과 법규준수, 정부 및 공직자의 정직성, 공정성, 형평성 등이 여기에서 파악되는 요소들이다. 이는 대인간관계나, 정부신뢰에서와 마찬가지로 군과 군인의 정직성과 공정성이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군의 폐쇄적 조직특성으로 인하여 법규준수 및 도덕성, 정직성, 공정성 등이 타 정부조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4) 군 조직 문화특성

군 조직의 특성상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사회 조직에 비해 개방성이나 합리성이 낮은 집단으로 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막대한 규모의 군사자산

과 예산이 평시에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을 소모 집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군 운영상의 효율성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효율성은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합친 개념으로 사용되고, 최근에는 생산성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능률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혹은 ‘비용과 효과의 비율’로 정의된다. 개방성(openness)은 신뢰대상이 진실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15],[3], 타인과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일관성(consistency)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뢰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다[15].

합리성은 간단히 말해 이치에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의하려고 할 때에 그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16]. 합리성의 개념은 조직의 규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합리성은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그리고 법적 합리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행정학에서는 초 합리성이나 순수 합리성보다는 현실적 합리성 혹은 사이먼이 주장하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17].

2.2 안보의식

2.2.1 안보의식의 개념

국가안보는 한 국가의 안전은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지, 자아성취를 위한 기초가 되므로 이러한 국민의 행복과 복지의 바탕이 되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18]. 한편 김구섭[19]은 “통상 국가, 사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를 유지,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그 결과 그 국가의 체제존립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바탕을 제공하는 것”로 정의하였고, 김충남, 문순보([1])는 “국가가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상태”로 정의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가안보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 발

전하였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연맹시대의 유럽에서 독일의 보복을 두려워한 프랑스가 자국을 비롯한 유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대외적 위협(주로 독일)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으로부터 발단한 개념인데[20], Lippman([21])에 의해 처음 학술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국가안보를 한 국가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만일 침략을 당할 경우 전쟁을 통하여 이러한 이익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였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며,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상대국이 공격적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력을 극대화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국가안보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안보는 ‘절대 안보(absolute security)’ 개념으로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전략적인 대응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위협의 실체가 외부 국가로부터의 군사적인 무력공격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군사안보라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냉전 시대에서는 미·소간에 핵 교착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정규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리적 수단을 사용한 비정규전과 테러 등 위협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국가안보의 개념도 확대되어 군사 또는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테탕트체제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안보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새로운 안보개념이 등장하였고, 탈냉전의 과정에서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냉전체제가 와해된 1990년대에 이후에 유럽의 안보문제 연구가들은 안보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사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

또는 총체적 안보, 공동 안보로 바뀌었다[22].

최경락 등[23]은 국가안보정책을 “군사, 비군사에 걸친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군사부와 비군사부문으로 구분하고, 비군사부문에 또 군사부문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였으며, 국외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상정하고 있다.

포괄적 안보개념은 종래의 정치, 군사적 측면을 중시하던 개념에서 비정치적, 비군사적 측면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안보개념은 안보 위협의 다양화에 따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 환경, 에너지, 사회 등 모든 분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안보개념을 의미한다[25]. 또한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가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가치를 국가체계 안에서의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았다.

2.2.2 안보의식과 국가안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국가안보 의식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국가안보와 안보의식간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외교안보분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본다. 또 국민들의 의사가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민들의 일상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에 그러하며 외교안보정책은 그 예외에 속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안보의식과 국가안보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경우 여론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은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약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민주주의체제에서 특성상 정책결정론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정책결정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20]. 또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의 유무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은 그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2.2.3 안보의식 결정요인

이영균[22]은 입대 전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신세대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성장, 전투력 강화, 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안보교육 강화, 주변국의 군사력, 대통령의 안보관, 지도층 인사의 안보관, 강대국의 자국이익 추구자세 순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하였다.

김용현, 박영주[24]는 전투력 강화, 경제성장, 안보교육 강화, 북한의 도발적 행동, 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북한과의 교류확대,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한미협력체제의 강화 등을 언급하였고, 백승도[25]는 안보상황, 국방신뢰, 자긍심, 참여도, 만족도, 안보의식을 안보의식 결정요인으로 꼽았다.

김종영 등[26]은 안보상황에 대한 태도와 견해, 안보위협 요인, 안보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을 꼽았고, 김용현 등[23]은 안보상황, 국방신뢰 참여도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김병조[27]는 안보의식 구성요소를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국방 및 군에 대한 인식 등을 안보의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파악하였다.

2.3. 선행연구

조인상[28]은 군의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연구에서 군인에 대한 이미지, 군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군 전체 이미지로 나누고, 군인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성, 결단성, 군인 합리성, 친근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대 이미지는 합리성, 응집성, 그리고 군 전체 이미지는 군사적 식견, 병무행정 공정성, 국가기여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또 군인 이미지는 군대 이미지와 군 전체 이미지에, 군대 이미지는 군 전체 이미지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경호([29])는 책임표명과 정보공개에 차이가 책임위임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군 신뢰를 군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인 '제도적 신뢰'와 군의 경계태세와 병력관리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의 신뢰인 '상황적 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강덕찬[30]은 군 이미지의 내용과 유형을 분류하여 이미지의 형성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군인 이미지는 신뢰성, 결단성, 합리성, 친근성의 속성을, 군대 이미지는 합리성과 응집성의 속성으로 결합되었다. 군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세영([31])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공군의 내부 구성원들과 일반국민들이 한국 공군의 조직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부 이미지, 외부인들이 그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구성원들이 추론한 외부 이미지, 조직 외부의 사람들이 그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내부 이미지는 촉망과 긍지, 안일과 무난, 응색과 구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추론된 외부 이미지는 세련과 여유, 실망과 진부, 유능과 신선으로 분류하고, 외부 이미지는 비전과 매력, 거부와 불신, 참신과 역동으로 분류하였다. 즉, 내부 이미지는 주로 이미지의 인지적 요소에, 외부 이미지는 주로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에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

서정근[32]은 신문에 반영된 군 이미지와 신문별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국내신문에 반영된 군의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신문은 오히려 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군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스스로 자기혁신을 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하였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3]는 청소년들의 한국전쟁 통일 안보 국가현실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남북한 관계 제반문제에 대하여 대다수가 현실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한국 분단이 대한민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남북한간 갈등의 심화로 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보고하였다.

김기정[34]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을 하여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위협의 대상 위협의 정도 안보확보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인식들을 파악하여 한반도의 평화모색을 단계를 제시하였다. 김창희[2]는 군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군 또는 군인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 또는 호의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또 군 신뢰의 결정요인으로 국가안보, 사회기여, 정치적 중립, 성실성 등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성실성이 군 신뢰에 가장 큰 정적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일관성, 정치 중립, 안보능력, 사회기여, 유효성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신뢰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군 신뢰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김용현, 박영주[24]는 대학생의 안보의식실태에 관해 연구에서 국내적변수와 국제적 변수의 독립변수에 따른 안보의식 수준을 검토하였는데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국민안보교육의 강화, 둘째, 군정부에대한 신뢰성 향상 셋째, 안보에 대한 관심의 유도를 주장하였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그림 1.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군에 대한 신뢰의 군사능력, 사회기여,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세분류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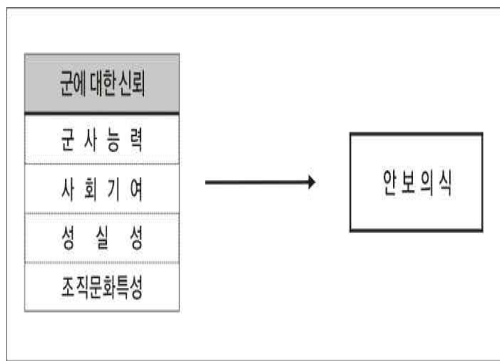
가설 H 군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 군의 군사능력은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2. 군의 사회기여는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3. 군의 성실성은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4. 군의 조직문화특성은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설문조사와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산 소재 모 대학 대학생 2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인문계 학생 60명, 사회계 학생 60명, 자연계 학생 60명, 예체능계 학생 20명으로 할당하였고, 설문조사는 학과 조교의 책임과 관리 하에서 설문대상자 본인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에 의하면 성별에서 남학생은 전체 200명 중 67.0%, 여학생은 33.0%로 나왔고, 학년별에서는 1학년이 24.0%, 2학년이 26.0%, 3학년이 31.5%, 4학년이 18.5%로 나왔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 자연계열이 각각 30.0%로 나왔고, 예체능계열이 전체의 10.0%로 나왔다. 군복무 경험에서는 없는 경우가 전체의 76.5%, 있는 경우가 23.5%로 나왔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34	67.0
	여자	66	33.0
학년	1학년	48	24.0
	2학년	52	26.0
	3학년	63	31.5
	4학년	37	18.5
전공계열	인문계열	60	30.0
	사회계열	60	30.0
	자연계열	60	30.0
	예체능계열	20	10.0
군복무 경험	없음	153	76.5
	있음	47	23.5

3.3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군의 대한 신뢰는 김창희[2]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군사능력, 사회적 기여, 성실성, 군 조직문화특성으로 분류하여 수정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코딩하여 설문문항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 군사능력에서는 ‘나는 한국군의 안보능력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의 전문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확실한 지휘체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기여는 ‘나는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나는 한국군이 사회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의 충성심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이고 성실성은 ‘나는 한국군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군 조직문화특성으로 ‘나는 한국군이 일관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개방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각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로 측정하고 설문문항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표 3> 군에 대한 신뢰 측정도구

측정 지표	설문문항
군사능력	a11:나는 한국군의 안보능력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a12: 나는 한국군의 전문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a13: 나는 한국군이 확실한 지휘체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기여	a21 나는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a22: 나는 한국군이 사회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a23: 나는 한국군의 대민활동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성실성	a31: 나는 한국군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a32:나는 한국군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a33: 나는 한국군이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a34: 나는 한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조직문화특성	a41:나는 한국군이 일관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a42:나는 한국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a43: 나는 한국군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a44:나는 한국군이 개방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안보의식은 류병목([12])과 성백선([35])의 연구를 참조하여 크게 ‘전쟁 위기의식’, ‘안보관심 정도’, ‘참여 의지’로 나뉘고, 여기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또는 국지적인 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관심이 있다.’, ‘안보교육과 민방위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면 적극 참전하겠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각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로 측정하고 설문문항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3.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군 신뢰와 안보의식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α 값을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시 요인적재값 추정에는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방식을 택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하였다. 부적절한 설문 문항 제거기준은 요인적재값 0.6/0.4로 하였다.

<표 4> 안보의식 측정도구

측정 지표	설문문항
전쟁 위기의식	b1.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또는 국지적인 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
안보 관심 정도	b2.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관심이 있다. b3.안보교육과 민방위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 의지	b4.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면 적극 참전하겠다. b5.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b6.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은?

분석 결과 요인1은 ‘성실성’, 요인2는 ‘조직문화특성’, 요인3은 ‘사회기여’, 요인4는 ‘군사능력’으로 인식되었다(<표 5>). 각 구성 개념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오고, 또 고유값은 1.0 이상, 4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동설명력은 77.007%로 50.0% 이상으로 나와 군 신뢰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왔다. 또 군사능력의 Cronbach α 값은 0.789, 사회기여는 0.773, 성실성은 0.894, 조직문화특성은 0.815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도 양호하게 나왔다.

<표 5> 군 신뢰 측정도구의 요인 분석

구성 개념	설문 문항	요인 적재 값	고유 값	설명 력	누적 설명 력	α
군사 능력	a11	0.819	2.47	17.6	17.6	0.78
	a12	0.717				
	a13	0.654				
사회 기여	a21	0.917	2.51	17.9	35.6	0.77
	a22	0.771				
	a23	0.629				
성실 성	a31	0.714	3.21	22.9	77.0	0.89
	a32	0.866				
	a33	0.791				
	a34	0.772				
조직 문화 특성	a41	0.817	2.58	18.4	54.0	0.81
	a42	0.714				
	a43	0.644				
	a44	0.696				

안보의식에서도 설문문항의 요인적재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왔고, 고유값은 4.112로 1.0 이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 설명력은 82.240%로 50.0% 이상으로 나와 안보의식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왔다(표 6). 또 Cronbach α 값은 0.886으로 0.7 이상으로 나와 내적일치도도 양호하게 나왔다.

<표 6> 안보의식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설문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 값	설명 력	누적 설명 력	α
b1	0.724	4.11	82.2	82.2	0.88
b2	0.819				
b3	0.776				
b4	0.910				
b5	0.824				

3.5 자료처리 방법

설문에 응답한 총 200명 중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적절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문항은 결측값(missing values)로 해당분석에서 케이스 별로 제외하였다. 자료처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8.0이다. 구체적인 통계방법론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또 기초분석으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상관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제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실증 분석

4.1 기초분석

<표 7>은 연구대상 변수인 군 신뢰와 안보의식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순위 등 기초 기술통계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신뢰에서 사회기여는 평균 3.

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군사능력은 평균 3.12로 나와 '보통이다'보다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군 조직문화특성이 평균 2.84, 성실성은 평균 2.78로 '보통이다'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보인식은 평균 3.31로 '보통이다'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표 7> 연구변수 기술통계

변수	하위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신뢰	군사능력	3.12	0.19	2
	사회기여	3.38	0.28	1
	성실성	2.78	0.22	4
	조직문화특성	2.84	0.17	3
	안보의식	3.31	0.30	

4.2 상관관계 분석

<표 8>은 연구변수인 군 신뢰와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군 신뢰 하위 변수들과 안보의식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안보의식과 군 신뢰 하위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군의 성실성과는 $r=0.41(p<.001)$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군사능력($r=0.38, p<.001$), 조직문화특성($r=0.28, p<.01$), 사회기여($r=0.21, p<.05$)의 순으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8> 연구 변수 상관관계

변수	군사 능력	사회 기여	성실 성	조직 문화	안보 의식
군사 능력	1				
사회 기여	0.19*	1			
성실 성	0.29**	0.18*	1		
조직 문화	0.27**	0.31**	0.37***	1	
안보 의식	0.38***	0.21*	0.41***	0.28**	1

* $p<.05$, ** $p<.01$, *** $p<.001$

4.3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인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분석 결과 군사능력에서는 $B=0.210(p<.05)$, 성실성에서는 $B=0.350(p<.001)$, 조직문화특성에서는 $B=0.169(p<.01)$ 로 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회기여는 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즉 군의 군사능력, 성실성, 조직문화특성에 대해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안보의식도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가설 H1, 가설 H3, 가설 H4는 채택되고 가설 H2는 기각되었다. 표준회귀계수를 보면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군사능력의 순으로 안보의식에 영향력의 큰 것으로 나왔다.

모형통계량을 보면 독립변인과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는 0.712로 나왔고 독립변인이 안보의식 전체 변동의 5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왔다.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32.451(p<.001)$ 로 모형은 유의적으로 나왔다.

<표 9>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 값	p 값
상수	-0.659	0.043	0.569	-15.278	0.000***
군사능력	0.210	0.066	0.181	2.072	0.021*
사회기여	0.104	0.057	0.131	1.302	0.222
성실성	0.350	0.041	0.326	8.806	0.000***
조직문화	0.169	0.062	0.180	2.679	0.008**
모형통계량	R	R2	수정	F 값	p 값
	0.712	0.509	0.487	32.451	0.000***

* p<.05, ** p<.01, *** p<.001

5. 결론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독도문제와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한국과 갈

등관계를 유발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관계는 최근 사드 설치 문제로 한중 외교 수립 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또 미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관계에서 앞날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결속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안보의식에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 도시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신뢰와 안보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신뢰 하위 변수 중 사회기여와 군사능력은 평균 3.0 이상으로 '보통이다'보다 이상으로 나왔으나 '성실성'과 '조직문화특성'은 평균 3.0 이하로 '보통이다'보다 낮게 나왔다. '성실성'과 '조직문화특성'이 낮게 나온 이유는 오랜 기간 군의 정치적 개입과 군납비리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또 사병 자살 및 구타 사건 또는 왕따 사건 등 등 인권 문제와 여군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 끊이지 않게 보도되는 반면에 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안보의식은 평균 3.31로 '보통이다'보다 조금 높게 나왔으나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국가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군에 대한 신뢰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군 신뢰와 안보의식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이 중 사회기여와 조직문화는 안보의식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반면 군사능력과 성실성은 안보의식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안보 인식은 군의 물리적 측면과 국방안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사회기여나 조직문화 등 군의 민주화나 투명성 제고는 군 안보의 물리적 측면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군사능력, 성실성, 조직문화특성이 안보의식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사회기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또 성실성, 조직문화특성, 군사능력의 순으로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군의 성실성, 조직문화특성이 매우 중요한데 군의 성실성, 조직문화특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군사능력, 사회기여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이미 상당한 민주화를 이룬 반면 군의 안보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비밀주의 관행을 고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방의 개념에 맞춰 국민들의 단결된 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의 정치적 개입을 철저히 막고, 군 비리에 엄정한 처리를 하는 한편 오랜 관행처럼 이어온 상하 복종 또는 계급 복종주의와 같은 억압적 유교 조직문화를 타파할 새로운 군 조직문화를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관학교 시절부터 현대사회에 걸맞는 인권, 민주주의,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모 도시에 거주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 국민들, 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여학생이나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은 대학생과 군 복무를 한 대학생간의 군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 신뢰나 안보의식에서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군복무 경험 대학생과 군 복무 경험의 없는 대학생간의 군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조절효과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1] 김충남, 문순보,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 서울:도서출판 오름, 2012.
- [2] 이흥기, "포괄안보시대 융합적 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제1권, pp 143-159, 2015.
- [3] 박통희,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2호, pp. 34-57, 1999.
- [4] 이덕건, "군조직에서 리더십 유형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변혁적, 거래적, 윤리적 리더십을 중심으로",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5] Lewis, J. D. and Weigert, A., "Trust as a socialreality", Social Forces, Vol. 63, pp. 967-985, 1985.
- [6] Lewicki, R. J., McAllister, D. J. and Bies, R. J.,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s and re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3, 438-458, 1998.
- [7] Bhattacharya, R., Deviny, T. M., and Pillutla, M. A., "A formal model of trust based on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3, pp. 459-472, 1998.
- [8] 김태웅, "청소년의 정보원 이용이 군 이미지, 복무의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9] Mayer, R. C., Davis, J. H. and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0, pp. 709-734, 1995.
- [10] Butler, J. K., "Toward understanding and measuring conditions of trust: Evolution of a conditions of trust inventory", Journal of Management, Vol. 17, pp. 643-663, 1991.
- [11] Butler J. K. Jr. and Cantrell, R. S., "A behavioral decision theory approach to modeling dyadic trust in superiors and subordinates", Psychological Reports, Vol. 55, pp. 19-28, 1984.
- [12] 류병목, "군복무만족도와 안보관심도가 애국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3] 전상조, "대학생의 안보의식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14] Mayer, R. C., Davis, J. H. and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0, pp. 709-734, 1995.
- [15] 이종범, '국민과 관료제', 서울: 고려대학교, 1988.
- [16] 김형렬, '정책학', 서울: 법문사, 2002.
- [17] 강용기 등, '새대기를 위한 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2001.
- [18] 윤정현, "신홍안보거버넌스: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3호, pp. 179-211, 2019.

[19] 김구섭,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 서울:한국 국방연구원, 2011.

[20] 장노순,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2호, pp. 88-112, 2019.

[21] Lippman, Walter, U.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Boston: Little Brown & Co, 1943.

[22] 이영균, “입대전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지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1호, pp. 47-74, 2002.

[23] 윤민우, “국가안보에 관한 다루어지지 않던 논의들”,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지, 제1권, pp. 243-272, 2015.

[24] 김용현, 박영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1호, pp. 187-213, 2011.

[25] 백승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pp. 108-122, 2012.

[26] 김종영, 황중호, 이규웅,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 전략논단, 제9권, pp. 214-243, 2008.

[27] 김병조,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도입, 채택, 발전”, 국방연구, 제54권, 제1호, pp. 1-24, 2011.

[28] 조인상, “군 이미지에 관한 통합적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9] 이경호, “정보공개와 책임표명의 차이가 책임 귀인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군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0] 한정택, “국가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 의식조사 결과 분석-대학생의 방첩의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0권 제4호, pp.76-94, 2010.

[31] 조세영, “공군에 대한 내·외부 공중의 이미지 비교연구: Q 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2] 황기식, 김현정,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제2호, pp. 76-94, 2017.

[3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국민의 호국 안보의식 제고

방안 청소년들의 한국전쟁 통일 안보 국가현실에 관한 의식조사’, 1997.

[34] 김기정, “국민 안보의식 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회의총서, 제4권, 제7호, pp. 43-88, 2004..

[35] 성백선, “안보교육과 안보의식 향상:4년제 대학생 의식조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저 자 소 개] —



전 경 국 (Kyung-Kook Chun)
 2011년 8월 경희대학교 경영학석사
 2015년 2월 영남대학교 보건학박사
 2012년 3월 ~ 현재 선린대학교
 국방기술의무계열 조교수
 (계열장)
 email : ckk1214@sunlin.ac.kr